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내원환자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김민정 · 김종한 · 박수연 · 최정화 · 박용호 · 김대수 · 정민영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A survey on patient preferences who had visited Dep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Hospital of Dong Shin University

*Min-Jeong Kim · Jong-Han Kim · Soo-Yeon Park · Jeong-Hwa Choi
Yong-Ho Park · Dae-Su Kim · Min-Young Jung*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eferences of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Dep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Method : We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atients who had visited the Dep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Hospital of Dong Shin University from March to September, 2007.

Result :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sex: male 41 % female 59%
2. The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showed highest in 30-39 years(23%), followed by 20-29 years, 40-49 years in order.
3. The classifica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disease: Skin disease (38%), Nose (23%), Face (10%), Eye (9%), Throat (8%), Ear (7%)
4. Other offices patients visited before coming to this clinic: Local clinic (41%). Hospital (18%), Oriental clinic or hospital (5%), None (22%)
5. The length of time the patient has had the disease: 2years (26%), more than 3years (15%), 2-4weeks (13%), 6months (11%), 1year (10%) in order
6. The expected length of treatment: 1week (21%), 2week (12%), 1month (21%)
7. 26% expected about 100,000 won as medical expenses.
8. 88% of the patients are willing to have a check-up when it needed and 40% expected about 50,000 won as check-up expenses.
9. 52% of the patients are not willing to withstand pain, and would rather heal slowly.
10. 69% of the patients said that treatment would be affected by company(44%), school(19%) and business(16%).
11. 73% of the respondents are positive about night-time treatment and 92% is positive about making an appointment for the treatment.

Conclusion : Through the research, we could understand preferences of patients who had visited Dep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Key word : preferences of patients, questionnaire survey.

서 론

1980년대 이후 의료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점차 시혜의 개념에서 계약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의료의 중심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종적, 의존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¹⁾. 즉 의료진이 제공하던 일방적인 의료서비스를 수동적으로 공급받던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이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 선택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²⁾.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병원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평가의 좋고 나쁨은 서비스를 받기 전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를 받고 난 후 내리는 평가 이 양자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때 환자의 기대와 현실사이의 괴리는 경우에 따라 불평 불만의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질병자체의 치료효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³⁾. 따라서 환자의 의식, 태도, 행태 등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사료된다.

이에 발맞추어 이미 양방에서는 각 과별로 환자 분포⁴⁾, 처치방법⁵⁾, 외래환자⁶⁾ 및 입원환자⁷⁾, 환자 성향 및 이용만족도⁸⁾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통해 통계자료를 축적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한방안이비인후과 임상 통계 자료는 김⁹⁾과 정¹⁰⁾,

신¹¹⁾등의 보고와 최근에 윤¹²⁾과 정¹³⁾ 등의 보고가 있으나 환자의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저자는 특정지역 환자의 의료 성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에 치료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동신대학교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초진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방법

설문 방식은 외래 초진 환자에게 진료를 받기 전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작성한 후 회수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내원한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과 환자의 성향 및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태 조사를 위해서 성별, 나이, 질환별 분포, 선행치료 유무, 질환명의 인식 유무, 질병에 이환된 기간 등을 파악하였고 환자의 성향 및 선호도는 예상 치료기간 및 비용, 검사 의향 및 예상 비용, 치료시 발생하는 통증, 치료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예약진료 및 야간진료 의향에 관한 문항으로 조사해보았다. 설문 문항 수는 총 14개였으며 설문 조사 과정에

교신저자: 김민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256
동신대 목동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Tel:02-2640-2700, E-mail: mj0820@freechal.com)
• 접수 2007/10/30 • 수정 2007/11/25 • 채택 2007/12/05

서 일부 문항에서 답이 누락된 설문지는 조사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1. 설문 참가자들의 성별 및 연령 분포

총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 남자는 41%(41명), 여자는 59%(59명)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연령별 비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30-39세군, 여자의 경우 20-29세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Age and Gender Groups of Respondents

Distribution	Male	Female	Total
0-9 years old	0	2	2(2%)
10-19	4	8	12(12%)
20-29	5	15	20(20%)
30-39	11	12	23(23%)
40-49	8	8	16(16%)
50-59	5	9	14(14%)
60-69	7	3	10(10%)
70-79	1	2	3(3%)
Total	41(41%)	59(59%)	100(100%)

2. 내원환자의 질환군별 분포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Patients According to Disease

Classification	Distribution	Ratio
Skin disease	38	38%
Nose	23	23%
Face	10	10%
Eye	9	9%
Throat	8	8%
Ear	7	7%
Oral cavity	3	3%
Etc	2	2%
Total	100	100%

환자들의 주소증과 진단명을 근거로 질환군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 중에서 피부 질환 환자가 38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코질환 23명(23%), 안면질환 10명(10%), 안질환 9명(9%), 인후질환 8명(8%), 귀질환 7명(7%), 구강질환 3명(3%), 기타질환 2명(2%)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동일 질환으로 본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

본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의원급을 이용한 환자가 41%(41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18%(18명),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5%(5명)로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는 22%(22명)였으며 한방과 양방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의 비율은 14%(1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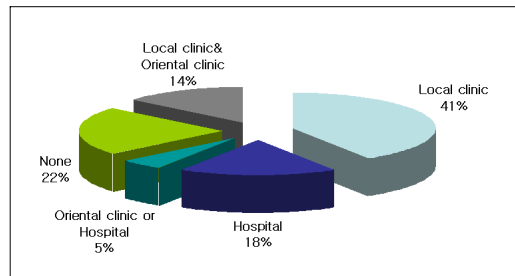


Fig. 1. Other offices patients visited before coming to this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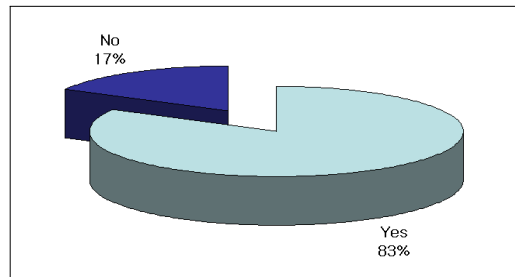


Fig. 2. Do you know the name of disease you have?

4. 환자의 질환명에 대한 인식 여부

본인의 질환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3%(83명)가 '알고 있다' 라고 답하였으며 17%(17명)는 '모른다' 고 답하였다. 질환명을 알고 있을 경우 기재해보도록 하였는데 대다수의 환자가 본인의 질환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5. 질병에 이환된 기간

발병일로부터 초진일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2년 이상' 이 26%(26명)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이 15%(15명)로 그 다음이었다. 1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22%(22명)였으며 1년 이상 지나서 내원한 환자는 51%(51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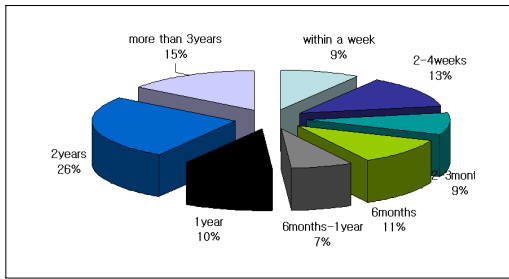


Fig. 3. The length of time the patient has had the disease

6. 예상 치료 기간

'예상하고 있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1주일 내외'가 21%, '2주일 이상'이 12%, '1개월 이상'이 21%, '2개월 이상'이 2%, '3개월 이상'이 6%, '6개월 이상'이 7%, '1년 이상'이 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등의 기타 답변이 27%였다.

7. 초진시 예상 진료 및 치료 비용

초진시 예상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에

는 '5만원 내외'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5-10만원'(10%), '20-25만원'(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는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초진비용과 환약을 복용할 경우 성인, 청소년, 소아로 나누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Table 3. The Expected Length of Treatment

Term	Number	Ratio
About a week	21	21%
2 weeks or more	12	12%
1 month	21	21%
2 month	2	2%
3 month	6	6%
6 month	7	7%
More than a year	4	4%
Etc	27	27%
Total	100	100%

Table 4. The Expected Initial Medical Expense

Expense (\ 10,000)	Number	Ratio
within 5	65	65%
5-10	10	10%
10-15	6	6%
15-20	4	4%
20-25	8	8%
25-30	4	4%
more than 30	3	3%
Total	100	100%

8. 예상 치료 비용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될 때까지 예상하고 있는 치료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0만원 내외'라고 답한 사람이 2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 내외'가 24%, '30-50만원 내외'가 10%, '50-80만원 내외'가 8%, '100만원 내외'가 5%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등의 답변이 27%였다.

Table 5. The Expected Medical Expense

Expense (\ 10,000)	Number	Ratio
Within 10	26	26%
20-30	24	24%
30-50	10	10%
50-80	8	8%
More than 100	5	5%
Etc	27	27%
Total	100	100%

9. 치료에 도움이 될 경우 검사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5%(55명)가 도움이 된다면 '한방, 양방 검사의 구분에 상관없이 하겠다'고 답하였고 29%(29명)는 '한방검사만 하겠다'고 하였고 12%(12명)는 '되도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하였다. '양방검사만 해보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4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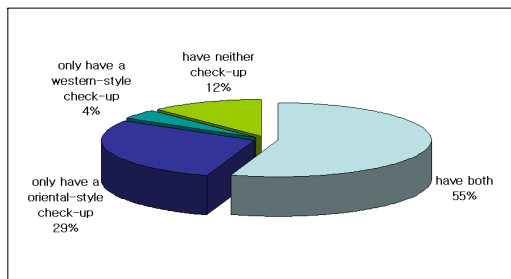


Fig. 4. Will the patient have a check-up when it's needed?

10. 예상 검사 비용

한방 검사 혹은 양방 검사를 시행할 때 예상하고 있는 검사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5만원 내외'가 40%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이 29%, '30-50만원'이 4%, '50만원 이상'이 3%였으며 '기타' 답변이 24%였다. '기타'를 응답한 이유는 '잘 모름' 혹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가 대부분이었다.

Table 6. The Expected Check-up Expense

Expense (\ 10,000)	Number	Ratio
Within 5	40	40%
10-20	29	29%
30-50	4	4%
More than 50	3	3%
Etc	24	24%
Total	100	100%

11. 치료시에 발생하는 통증

'다소 통증이 있더라도 빨리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8%가 '그렇다'고 하였고 52%는 '다소 치료가 느리더라도 되도록 통증이 없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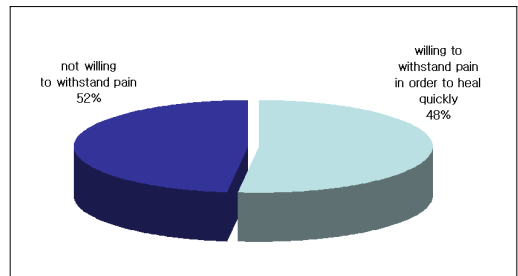


Fig. 5. Willing to withstand pain in order to heal quickly or not

12. 지속적인 치료에 장애물이 되는 것

주 2-3회 외래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9%(69명)가 '있다'고 답하였고 31%(31명)는 '특별히 무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직장(44명), 학업(19명), 사업(6명) 순으로 나타났다.

13. 야간진료 의향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이유로 일반 외래 시간에

진료를 받기 힘들 경우 야간 진료(6:00 pm-9:00 pm)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73%(54명), ‘없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7%(20명)로 나타나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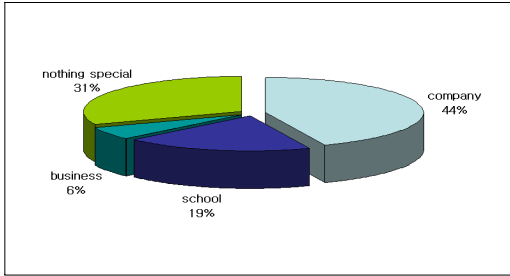


Fig. 6. What would possibly be affected by the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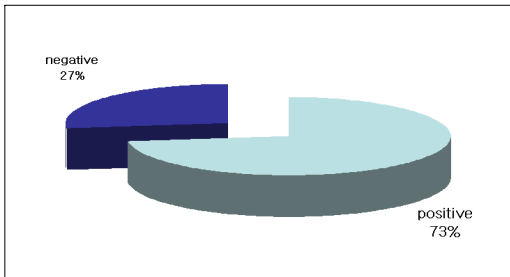


Fig. 7. What are the feelings about night-time treatment

14. 1회 진료시 예상하고 있는 소요시간

1회 병원 방문시 예상하고 있는 총 진료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0분 내외가 53%(53명)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내외가 40%(40명), 1-2시간 내외가 7%(7명)로 나타났다.

15. 예약진료

사전에 진료 날짜 또는 시간을 정하고 내원하는 예약진료에 대해서는 92%(92명)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8%(8명)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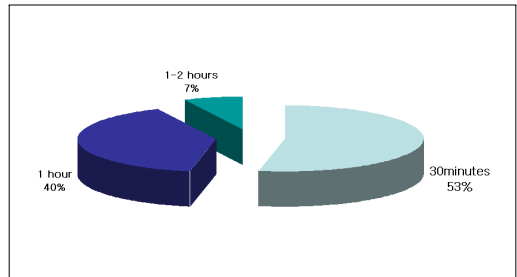


Fig. 8. The expected length of time for a check-up, per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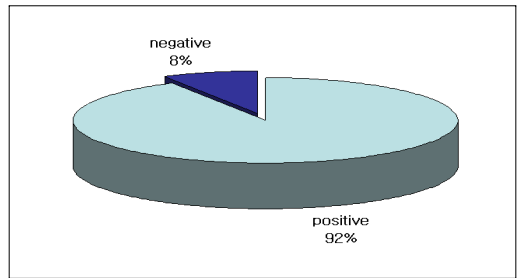


Fig. 9. What are the feelings about making an appointment for the treatment?

고 찰

최근 병원 수의 증가, 환자들의 소비자주의, 의료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도 기존의 병원중심 진료체계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높아져가는 환자의 기대치와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성향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실태와 성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남자는 41%(명), 여자는 59%(명)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남녀비는 1:1.44

였다. 연령별 비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30-39세군 (11%), 여자의 경우 20-29세군(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 중에서는 30-39세군이 23%, 20-29세군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환자들의 주소증과 진단명을 근거로 질환군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 중에서 피부 질환 환자가 38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코질환 23명 (23%), 안면질환 10명(10%), 안질환 9명(9%), 인후질환 8명(8%), 귀질환 7명(7%), 구강질환 3명 (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의원 급을 이용한 환자가 41%(41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18%(18명),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5%(5명)로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는 22%(22명)였으며 한방과 양방치료를 모두 받은 환자의 비율은 14%(14명)이었다. 70%이상의 환자가 양방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한 후 내원하여 안이비인후과부과 질환에서 한방치료가 1차 치료수단으로 인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질환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3%(83명)가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17%(17명)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질환명을 알고 있을 경우 기재해보도록 하였는데 대다수의 환자가 본인의 질환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이는 71%의 환자가 양방 병원 및 의원을 한차례 이상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내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병일로부터 초진일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2년 이상이 26%(26명)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이 15%(15명)로 그 다음이었다. 1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19%(19명)였으며 1년 이상 지나서 내원한 환자는 51%(51명)에 달하였다.

예상하고 있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에는 '1주일 내외'가 21%, '2주일 이상'이

12%, '1개월 이상'이 21%, '2개월 이상'이 2%, '3개월 이상'이 6%, '6개월 이상'이 7%, '1년 이상'이 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등의 기타 답변이 27%였다. 이명이나 안면마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치료효과를 보기 어려운 질환의 경우에도 예상치료 기간을 짧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시 예상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본원 의 초진 비용과 한약을 복용할 경우 성인, 청소년, 소아로 나누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5만원 내외'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10만원 10%, 20-25만원 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을 통해 65%이상의 환자가 한약 복용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이 될 때까지 예상하고 있는 치료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0만원 내외'라고 답한 사람이 2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30만원 내외'가 24%, '30-50만원 내외'가 10%, '50-80만원 내외'가 8%, '100만원 내외'가 5%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등의 답변도 27%였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5%(55명)가 도움이 된다면 '한방, 양방 검사의 구분에 상관없이 하겠다'고 답하였고 29%(29명)는 '한방검사만 하겠다'고 하였고 12%(12명)는 '되도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하였다. '양방검사만 하겠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4%(4명)에 불과했다. 88%의 환자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84%의 환자가 한방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가시적

이고 객관적인 치료경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 검사 혹은 양방 검사를 시행할 때 예상하고 있는 검사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5만원 내외가 40%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이 29%, '30-50만원'이 4%, '50만원 이상'이 3%로 나타났다. '기타'를 응답한 이유는 '잘 모름' 혹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가 대부분이었다.

'다소 통증이 있더라도 빨리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8%가 '그렇다'고 하였고 52%는 '되도록 통증이 없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소 치료가 느리더라도 통증 없는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의 비율이 52%로 나타나 환자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통치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2-3회 외래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9%(69명)가 '있다'고 답하였고 31%(31명)은 '특별히 무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직장(44명), 학업(19명), 사업(6명)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서 생산연령에 속한 환자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사유가 치료의 지속 여부와 호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이유로 일반 외래 시간에 진료를 받기 힘들 경우 야간 진료를(6:00pm-9:00pm)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73%(54명), '없다'가 27%(20명)로 나타나 야간진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1회 병원 방문시 예상하고 있는 총 진료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0분 내외가 53%(53명)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내외가 40%(40명), 1-2시간 내외가 7%(7명)로 나타났다.

사전에 진료 날짜 또는 시간을 정하고 내원하는 예약진료에 대해서는 92%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8%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예약 진료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여서 환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Follow up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사에게 효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73%의 환자가 양방 병원 및 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내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환자들에게 양방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진료내용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진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안이비인후과피부과 질환의 한방치료에 대해 홍보를 하여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적인 불만족은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치료만족도의 상대적 요인을 높이거나 진료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통해 가치를 부여해주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약진료나 야간진료 등 다양한 진료방식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자에게 진료받기 전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으로 내원환자들의 실태 및 치료를 받기 전 환자의 기대치와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개 병원 단위의 결과이고 병원이 위치한 목동 인근의 특정 지역 환자들이 주로 내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환자들의 실태 및 성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자료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축적하여 환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1. 남자가 41%(41명), 여자는 59%(59명)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연령별 비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30-39세군(11%), 여자의 경우 20-29세군(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내원환자의 질환군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피부 질환 환자가 3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3. 동일 질환으로 본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으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의원급을 이용한 환자가 4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4. 내원한 환자의 83%(83명)가 본인의 질환명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질환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5. 발병일로부터 초진일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2년 이상이 26%(26명)로 가장 많았다.
6. 예상 치료 기간은 '1주일 내외'가 21%(21명)로 가장 많았고 예상 치료비용은 '10만원 내외'라고 답한 사람이 2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7. 초진시 예상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질문에 '5만원 내외'가 65%로 가장 많았다.
8. 검사 의향에 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면 '한방, 양방 검사의 구분에 상관없이 하겠다'는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고 예상하고 있는 검사비용은 5만원 내외가 40%로 가장 많았다.
9. 치료시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질문에는 52%(52명)가 다소 치료가 느리더라도 되도록 통증이 없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10. 외래치료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9%(69명)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직장, 학업,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11.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일반 외래 시간에 진

료를 받기 힘들 경우 야간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3%의 환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12. 1회 병원 방문시 예상하고 있는 총 진료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0분 내외가 53%(53명)로 가장 많았고 예약진료에 대해서는 92%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참고문헌

1. Chaman, C. B. and Talmadge, J. M. : The evolution of the right to health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Pharos Alpha Omega Honor Soc., 1971;34:30-51,
2. 최용환.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호행태에 관한 분석. 충북개발연구. 2001; 12(2):213-134
3. Banta D. What is health care?: In Jones S. ed, Health care delivery in the United States. 2nd ed, New York: Springer, 1977:12-39.
4. 김진복 외 1인. 피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1981-1990).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3):366-374
5. 한용수, 신경환. 안외상의 통계적 고찰. 대한안과학회지. 2005;46(1):117-24
6. 허기석, 헌기석, 강중봉, 전인기, 김영표 . 최근 10년간 피부과 외래환자에 대한 분석 (1971-1980). 대한피부과학회지. 1982;20(1):59-67
7. 구분술, 안상기, 양한남. 안외상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통계적 고찰. 대한안과학회지. 1990; 31(3):359-66
8. 장기영, 송근배, 이철휘, 조광현. 경북대학교 병원 치과보철과 내원환자들의 성향 및 진료 만족도에 관한 분석. 대한구강보존학회지. 1997;21(4):605-20
9. 김윤범. 외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대한

- 외관과학회지. 2000;13(1):280-90
10. 정순영 외 1인.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 18(2):51-61
 11. 신상호, 김자혜, 김민희, 윤화정, 고우신. 안과 질환 외래환자에 관한 임상적 분석.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171-9
 12. 윤대철, 최종민, 김희택. 제천 지역의 초등학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61-70
 13. 정아름누리, 홍승욱.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내원한 피부질환 환자의 임상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51-60